

“대기업 취업보다 의대”... 계약학과 정원 1.8배 ‘등록포기’

5개 반도체계약학과, 138명 등록 안 해 한양대, 정원 대비 포기율 360% 의과대학·서울대 동시합격에 이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5개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난해 정시모집에서 정원 1.8배에 달하는 인원이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생들이 의과대학 등 상위권 학과에 중복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올해 의대 증원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분석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5개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모집정원 77명 대비 179.2%에 달하는 138명이

〈2024학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미등록 현황〉

계약기업	학교명	모집군	학과명	정시 등록 포기		
				모집	최종 추가합격	모집인원대비 비율
SK하이닉스	고려대학교	가	반도체공학과	10	10	100.0%
	한양대학교	나	반도체공학과	10	36	360.0%
	서강대학교	나	시스템반도체공학과	10	14	140.0%
소계				30	60	200.0%
삼성전자	성균관대학교	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2	13	59.1%
	연세대학교	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5	65	260.0%
	소계				47	78
합계				77	138	179.2%

/종로학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 전원은 물론, 추가합격자 중에서도 최초합격자 79.2% 규모가 평균적으로 등록을 포기한 셈이다. 5개 반도체 계약학과 202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은 평균 7.30대 1이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 3곳은 29명 모집에 284명이 지원해 9.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삼성전자 계약학과 2곳은 5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해 5.86대 1

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에 취업이 보장되는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3곳의 경우 모집정원(30명) 대비 200%에 달하는 정시 합격자(이하 추가합격 포함) 60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10명 모집정원 중 36명이 등록 포기로 인한 정시 추가 합격이 발생해 정시모집 정원 대비 포기율(360%)이 가장 높았다.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10명 모집정원에 140.0%에 해당하는 14명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모집정원인 10명 만큼의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성균관대의 반도체 계약학과는 모집인원(47명)의 166.0%인 78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모집

인원(25명)의 260%에 해당하는 65명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도 모집인원(22명)의 59.1%인 13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포기한 합격자 대부분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이나 서울대 이공계 학과에 동시에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계약학과 이탈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맞물려 관련 기업들의 경기 상황도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약계열, 대기업 계약학과 중복합격 시 선호도 측면에서 의약계열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특성화·마이스터고 충원율 늘었다

충원율 94.65%... 전년비 2.44%p↑ 학령인구 감소에도 직업계고 지원 늘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산업군 인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지역 특성화고와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

9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결과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1만234명 모집에 1만2111명이 지원해 총 9686명이 합격했다. 충원율은 94.65%로 지난해 92.21%보다 2.44%p 올랐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 관내 고교 입학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지난 2023년 7만3018명에서 2024년 6만

8524명으로 7만명대가 무너진데 이어 올해 6만3924명으로 지속해 줄고 있지만, 직업계고 지원자는 늘어났다.

학교별로 보면, 마이스터고 4곳은 558명 모집에 824명이 지원해 지원율 147.67%를 기록했으며, 이중 565명이 합격했다. 충원율은 101.25%로, 2년 연속 100%를 넘겼다.

특성화고 67곳은 모집정원 9676명에 지원자는 1만1287명이다. 지원율은 116.65%로, 9121명이 최종 합격했다. 충원율은 94.26%를 나타내며 전년 대비 2.53% 상승했다.

또한, 일반고 재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6곳은 1352명 모집에 지원자가 1786명 몰렸

다. 지원율 132.10%를 나타낸 가운데, 1229명이 합격해 충원율 90.90%를 보였다.

올해 지원을 상위 5개 산업군(교과군)은 ▲문화·예술·디자인·방송(34.4%) ▲식품·조리(11.7%) ▲경영·금융(10.4%) ▲미용·관광·레저(10.2%) ▲정보통신(9.4%) 등 학생 소질과 적성에 따른 소신 지원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고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 개편과 재구조화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및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던필드그룹, 산학협력 연구 ‘맞손’

경영인·패션전공 인재 양성 등 협력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6일 201관(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던필드그룹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산학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대학 교육 특성화에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서순희 회장을 비롯한 던필드그룹 관계자들과 박상규 총장, 이형환 단번치캠퍼스부총장, 김승일 예술대학 학장, 김영삼 패션전공 교수와 채무석 산학협력단 교수,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등 중앙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피에르가르맹의 로드리고 바실리카티 가르맹 CEO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맹이 주최한 ‘2024 영디자이너 어워드’에서 수상한 패션전공 최예원 학생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와 던필드그룹은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 경영인 양성, 패션전공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공동연구과제 ▲연구인력 방문 등 인력교류 ▲심포지엄·세미



중앙대학교와 던필드그룹의 산학협력 업무협약식에서 박상규 중앙대 총장(왼쪽)과 서순희 던필드그룹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중앙대

나 등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간행물 교환 ▲공모전·특강·인턴십 등 취업 역량 강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순희 회장은 “대학과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현장 학습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향후 인재 양성 과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이번 협약이 예술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최고의 패션기업과 협력해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대학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상명대학교 예비 신입생 대상 ‘상명프레쉬’ 성료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6일 서울 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상명프레쉬’ Pre SangMyung 상상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상명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한 상명프레쉬는 2025학년도 서울캠퍼스 수시전형 합격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학부 예비 신입생들의 전공교육기반 창의융합 능력 및 융복합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김민호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의 개회사 및 상명대 비교과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참가자 팀 빌딩과 트리즈싱킹 창의적 문제해결 특강에 이어, 팀별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 등이 이뤄졌다.

김민호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기회를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해 결과를 쟁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IITP 정보보호 우수과제 선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영갑 교수 연구팀, 표창장 받아

세종대학교(총장 임종화)는 김영갑 정보보호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수행 중인 ‘공공 인프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영상 보안 기술 및 시스템 개발’ 과제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2024년도 정보보호 분야 우수과제로 선정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표창장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김영갑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반 보안 영상처리 기법과 영상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수행 결과, 지난 6년간 SCIE 논문 41편(JCR 게재 연도 기준 IF 상위 2% 이내 8편, 상위 10% 이내 총 18편, 상위 30% 이내 총 27편)을 포함해, 특허 출원 33건(국제 7건, 국내 26건) 및 특허 등록 12건(국제 3건, 국내 9건)을 진행하고 국내외 핵심 특허를 확보했다.



또한, 연구팀은 지능형 CCTV의 주요 원천기술인 영상시놉시스 및 영상 암호화 관련 4건의 국내표준(ITA)과 이기종 프레임워크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ISO/IEC 국제표준 1건을 제정했다.

김영갑 교수는 “이번 기술 개발로 사이버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측 및 처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시놉시스 추출, 접근제어, 암호화 기술을 보안 영상을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필수 보안 기술로 활용하고, 공공 인프라 기반 시설의 CCTV 영상 관제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갑 교수는 입 과제를 통해 개발한 상호운용 기술, 인공지능 기반 영상 시놉시스 생성 및 영상 암호화 기술을 제품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인도퍼(NTOPER) 기업을 창업했다. /이현진 기자

사이버한국외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대학 홍보 서포터즈 재학생 참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대학 홍보 서포터즈 소속 재학생들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의 혹한기 추위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을 통해 연탄 구매와 배달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이버한국외대 홍보 서포터즈 ‘구베’ 2기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이날

아침 구룡마을에 모여 마을 내 가구로 연탄을 직접 날랐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입춘이 다가왔음에도 기승인 한파와 폭설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노후를 온라인상에 그대로 구현해 2004년 개교한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이다.

/이현진 기자